

Response", *Speculum*, Vol. LII(1977).

- Deutsch, K. W., "Anti-Semitic Ideas in the Middle Ages: International Civilization in Expansion and Conflict",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VI(1945).
- Funkenstein, Amos, "Basic Types of Christian Anti-Jewish Polemics in the Later Middle Ages", *Viator*, Vol. 2(1971).
- Langmuir, G. I., "Anti-Judaism as the necessary preparation for anti-Semitism", *Viator*, Vol. 2(1971).

## 선악과와 인류의 창조위치에 대한 고찰

김 영 일  
(신대원 1년)

### 목 차

서 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2. 연구방법

본 론    1.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2. 인류는 왜 선악과를 취했는가?  
            3. 선악과를 취한 결과는 무엇인가?  
              1) 인류자신에 나타난 변화  
              2) 하나님의 저주  
              3) 생명나무에의 길이 막힘  
            4. 범죄후의 인류

결 론    1. 살려주는 영으로써의 그리스도  
            2. 생명나무로써의 그리스도

## 서 론

### 1. 연구동기

성경에서 가장먼저 시작된 인류의 삶의 이야기는 에덴동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에덴동산은 인류의 삶의 시작이요, 또한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지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 동산은 인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림으로써 스스로 비참과 곤고함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 인류역사의 비극의 시작점이며, 또 그렇기에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기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에덴동산에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적 요소가 담겨 있으며, 에덴 동산과 인류의 범죄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류의 속성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인류의 위치에 대해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렇듯 중대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산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그다지 활기를 띠지 못한 것 같다. 사실상 이 동산과 연루된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사리 함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선뜻 나설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인류가 선악과를 취한 것이 그토록 큰 죄였단 말인가? 어찌 보면 에덴동산과 연루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잔인하고 야비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해 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 또 제해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새대의 비극은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의문시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기존의 해석들에 의지하여 이해하고, 스

스로 그 난제점을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누군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질문해오면,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어정쩡한 불가지론을 내세워 아예 대답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피증이 실상은 기독교와 성경을 신자들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돌아보지도 않는 사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받지 못한 채 신앙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억지 믿음을 갖는 법을 배운다. 도저히 이해는 안되지만 그래도 믿긴 믿어야 하니깐 믿지만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자연히 말씀에 대해 소홀해져버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서 허용되는 한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 때로는 그것이 이단같이 보이고 위험스럽게까지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해되어져왔음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지 않는 세대가 잘못되었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다루게 되어질 '선악과와 인류의 위치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루기 꺼려하는 부분에까지 감히 손을 대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본인은 이 글의 반대자를 인정한다. 그것은 본인이 이 글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논자의 소견으로 제출할 뿐이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과 독자들을 통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선악과의 문제가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 추리와 논증과 상상을 동원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쩌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추상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어쨌든 이 작은 글이 교리에 대해 관심이 시들어져 가는 이 시대에 작으나마 교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2 연구방법

이 글의 연구를 위해서 특별히 주석집과 몇 권의 참고자료를 사용하여야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원칙적을 성경에 근본을 두었으며, 그 순서도 일반적인 성경 순서에 따라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에 대해 원인론적으로 생각해 볼것이며, 제2장에서는 선악과를 인류가 취하게된 동기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제3장에서는 선악과를 취한 결과 나타난 현상들을 통하여 선악과의 효력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이렇듯 범죄한 인류가 에덴 동산을 나간 후 어떤 일이 발생하였나를 살펴봄으로써 원죄적 의미를 생각해 보며,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원죄적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아무쪼록 이 글이 그 동안 선악과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리지 못하던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답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 본 론

### 1.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창조와 인류의 창조를 생각할 때, 나타나는 의문 중의 하나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왜냐하면 죄의 원인을 생각할 때 그제1원인 자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이기 때문이다. 즉 만일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류는 범죄 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죄문제로 인하여 인류가 괴로워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라는 것이 한결같은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질문 속에는 창2:9절 말씀이 간과되고 있다.

즉 하나님은 동산에 각종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속에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던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나 생각처럼 하나님이 인류의 범죄를 조장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먹고 살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선악과나무는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선악과만을 특별히 없애 버리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어떤 이유로든 선악과나무가 우리 인류의 삶을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나무가 우리 인류의 삶에 필요했던 것일까?

#### 1) 인류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써의 선악과

선악과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이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는 왜 필요했던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동산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나무들 중에 선악과나무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동산의 모든 나무는 인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또 이런 나무들 속에 선악과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선악과나무가 인류의 삶을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그렇다면 과연 선악과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삶에 필요했던 것일까?

본질상 인류는 피조 세계에서 여타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위치를 갖고 창조되었다.<sup>2)</sup>

그것은 곧 인류의 삶 자체 역시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류의 삶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어떤 것

1) 매튜헨리, 창세기(上), 기독교 문사 1980, p75

2) 박형룡, 교의신학 제3권, p107 을 참고할 것.

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 될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지적 삶이라 부른다. 또 만일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지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필요했고, 선악과는 바로 그 지식을 공급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sup>3)</sup>

## 2)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선악과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에 잠긴다면 우리는 누구나 물을 것이다. 만일 인류가 다른 여타 짐승과는 다른 그 어떤 지적 삶을<sup>4)</sup> 살도록 창조되었고 또 그러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 선악과가 필요했다면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취하는 것을 금지 하셨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살필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은 창 1:26-27에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창조하셨고, 인류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류를 범한다. 즉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인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피조세계를 인류에게 주셨다고 하신 적이 없다. 그럼 무엇인가? 단지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인류에게 맡겨 두신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인류의 중간자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나타난다. 즉 하나님은 인류가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기위해 인류에게 특별한 형질을 부여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다. 이 생기를 육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령이었다.<sup>5)</sup> 그렇다면 생령이란 무엇인가?

3)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된 위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본질상 선과 악이란 존재대 존재가 독립적인 위치 속에서 서로를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악과가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곧 인류에게 이러한 독립적인 위치가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자유의지로써 표현된다.

4)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로써의 삶의 양식

이것은 곧 살아 있는 영을 의미하는 것이며, 살아 있는 영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마22:32~33)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산 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산 자의 조건 곧 생명의 조건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 그것은 곧 인류가 하나님과 피조 세계간의 중간자였기 때문이었다. 즉 인류는 육체로는 피조 세계의 형질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형질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만 유의 주권자는 하나님께서며, 만일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한다면, 인류의 지적삶 역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했고, 결국 그것은 선악과라는 언약으로써 나타났던 것이다.<sup>6)</sup>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십계명에서 잘 발견할 수 있다. 즉 십계 명중 1-4계명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한 계명이요, 5-10계명은 인류의 도덕적 삶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먼저 앞에 두고, 도덕적 계명을 뒤에 두었던 것일까? 그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일반적 도덕적 삶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5) 박형룡박사는 여기서의 생령이란 실유적존재로써, 인류가 생득적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본다. 박형룡, 교의신학 제3권 p97 기독교문사. 반면 텔리취는 여기서의 생령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호흡을 함으로써 갖게 되는 삶이라고 주장한다. 카일, 텔리취, 구약주석, 기독교문화사, 1979, p111. 일차적인 의미에서는 텔리취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걸쳐 산다는 의미는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연관되어 해석되어진다. 더구나 여기서의 아담의 생령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써의 표현이므로 마땅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했다는 의미로써 해석되어짐이 바람직하다.

6) 창세기의 이 기사를 언약으로 보는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 할수있다.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형룡 교의신학 제3권 p120을 참조할 것.

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떠나서는 우리의 온전한 도덕적 삶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도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인간 안에 나타난 도덕은 하나님의 선이 가시화된 하나님의 투영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선은 이미 선이 될 수가 없고 선도 아니다. 선악과의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선악과는 분명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겠지만<sup>7)</sup>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가운데 서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인류의 순종을 통하여, 피조세계에 대한 당신의 통치권이 훼손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2 인류는 왜 선악과를 취했는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두려운 것이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죽음이란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주님의 계명을 두려워했던 말인가? 이에 대한 인식을 위해 우리는 창조 당시의 에덴 동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과 혼동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명 에덴 동산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만일 그곳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라면 그곳에는 구태여 영생을 주는 생명 나무가 필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형태였든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두려워 차마 선악과에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7) 여기에서의 지식과 명철 이란 선악에 대한 지식이며, 생득적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악에 대한 개념을 더 살펴보기 바란다.

그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든 몰랐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장시간 선악과를 취할 수 없었고 취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 변수가 생겼다. 곧 뱀의 출현이 그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뱀은 과연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뱀의 정체에 대해 얘기할 때 너무나 쉽게 그것은 사단, 혹은 사단의 출개라는 식으로 이해해 버린다<sup>8)</sup>.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려 버린다면, 우리는 동산의 사건에 대해 너무나 단조로운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놓쳐 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전에 먼저 그 뱀이 어디에 있었으며, 그 근원은 어디인지부터 살펴보자. 첫째로 뱀의 정체는 그가 동산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곳은 완벽했으며, 악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sup>9)</sup>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동산에 바로 뱀같이 극도로 사악한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뱀이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뜻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동산에 그 뱀이 존재하도록 내버려두신 것일까? 어떤 이들은 뱀이 창조 초기에는 선한 존재였으나 그곳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벼려 그가 사단의 출개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존재가 까닭 없이 악의 영의 출개가 되도록 방임하실 것 같은가? 또 어떤 이들은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고한다.<sup>10)</sup> 물론 각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 나

8) 매튜헨리,창세기주석.박근용역.1980,p93, J . P lange 창세기 주석.김 진홍역.복음서원.1978,p367 참조

9) 매튜헨리,창세기 주석. p73

10) 대부분의 주석 가들은 뱀이 사단의 형상 최소한 사단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 근거로써 벤후2:4에따라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이전에 이미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한 사건을 예로 든다.( 멜리퀴. 매튜헨리 구약 주석을 참조

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상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창2:15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 하는데 첫째로는 동산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동산은 누군가로부터 지켜져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1)</sup> 그렇다면 지켜져야만 하는 그 대상은 누구란 말인가? 그것은 바로 동산의 파괴자였다. 그 동산의 파괴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동산 내부에 있는 그 누군가였으며, 종국에 그것은 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뱀이 여자를 유혹한 부분에 대하여 의아함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왜 뱀이 여자를 유혹 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뱀은 여자를 유혹함으로써 얻을 소득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먼저 여기서 뱀의 두 가지 특성을 짚고 넘어가 보기로 하자.

1)뱀이 여자를 유혹 한데서 우리는 본능적인 뱀의 파괴적 본성<sup>12)</sup>을 생각해 보자. 앞에서 밀했던 것처럼 동산에는 파괴자가 있었고, 아담의

하라)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볼때 이 창세 이전의 어떤 문제에 대해 추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창세기 자체가 이미 모든 역사의 시작점인데, 여기서 그이 전의 역사를 인식한다는 것은 창세기의 기사를 창세가 아닌 그 이후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뱀의 타락 역시 이미 타락했던 천사를 끌어들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낼 뿐이다.

11) J. P Lange, 창세기(상) 김진홍역 1978 P288

12) 파괴적 본능은 곧 악을 의미한다. 우리는 흔히 악을 선에 반대되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데 실상 악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만일 인천에서 배가 출항하여 미국으로 가는 것이 그 목적일 때 그 배는 반드시 미국으로 가야만 한다. 만일 미국이 아닌 그 어떤 곳 즉 일본이나 필리핀등 어떤 곳으로 가든 그것은 원래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간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난 모든 것이 바로 악이란 근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선이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악이란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며, 선을 훼방하는 것인데 바로 이 훼방을 파괴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역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파괴자로부터 동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뱀의 이러한 파괴적 본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이 파괴적 본성이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급한 결론이 되어 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만일 그와 같은 결론이 난다면 그때는 또 만일 그렇다면 사단의 그 파괴적 본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는 질문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동산 내부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만일 우리가 어떤 결과를 원한다면, 마땅히 그 대답도 동산 안에서 주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이러한 파괴적 본성은 곧 뱀안에 있어서 자생적이었다고 결론 내려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본성이 자생적이 되었는가는 생명 나무에로의 길이 막힘 부분을 보기 바란다.

2)둘째로 뱀의 파괴적 본성외에도 뱀은 이미 상당한 악으로 준비되어져 있음을 본다. 본질상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장막이며, 따라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연결해 주는 중간자가 바로 인류였던 것이다. 인류가 피조세계의 특징인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의 특성인 생기를 받아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간자의 입지를 적절히 설명해 주는 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중간자인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피조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분리된 피조세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불가불 뱀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피조세계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인류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곧 뱀의 가르침을 수용했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인류가 사실상 뱀의 통치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에는 사실상 자신이 피조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욕심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수있다. 또한 이러한 뱀의 양상은 이미 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속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단의 속성과 하나

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뱀의 간계는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되어졌음을 본다. 즉 뱀은 단지 일순간에 충동으로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당히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그 예로 창3:1의 말씀을 들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뱀의 접근은 직접적인 접근이라기 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사단이 바로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할 때 쓰던 수법이었다. 즉 사단은 주님께 두번에 걸쳐 간접적인 접근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뛰어내리라는 것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러한 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경배하라 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여자에게 접근한 뱀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가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는것이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니 따위의 잡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은 뱀이 이미 여자로 하여금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뱀을 대적자 곧 사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뱀의 접근에 대해 여자의 대답을 보면 우리는 여자의 심적 상태를 어는 정도 짐작케 되어진다. 즉 창3:3에서 하와는 단지 먹지 말라 했다는 주님의 계명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대답한다. 우리는 왜 여자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어떤 이는 여자가 여기서 단지 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만지지도 말라 라고 까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강화 시키는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 속에서 하와의 결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3)</sup> 그러나 실상 이내용

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여자가 상당히 불만에 싸여 있다는 어감을 느끼게 된다.흔히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아이에게 억지로 칼을 빼앗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을 때, 나중 자기 아버지가 칼 좀 갖다 달라 하면 어머니가 칼을 손대지도 말라고 했다 하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거절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왜 하와는 이러한 선악과로 인해 불만에 싸여 있었던 것일까? 창2:9는 동산의 열매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 나무 열매가 그러하였다면 과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또 어떠했겠는가? 여자는 이미 선악과에 대한 욕망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가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었다.<sup>14)</sup> 인간이 어떤 죄의 욕망 가운데 사로 잡혀 있을 때 만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동기라도 주어진다면 인간은 금지된 죄악이라도 행하게 되고 만다. 그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자가 선악과를 취하지 못한 것은 오직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따라서 만일 죽음에 대한 공포만 없어진다면 여자는 언제든지 선악과를 취할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때 뱀이 나타났다. 뱀은 여자에게 바로 이 불만이 고조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는 마치 주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제일 배가 고풀 마지막날에 뱀이 나타난 방법과 같다. 뱀은 하와의 불men 소리

14)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여자가 유혹에 넘어간 것은 뱀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생각 뒤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항상 깔려 있는데 그 것은 곧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이미 범죄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는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가 동산에 머문 시간을 단시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옳지 않다. 실제로 인류는 동산에서 장시간 혹은 몇십 년을 머물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뱀이 인류에게 접근하도록 내버려두셨다는 것은 이미 인류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입지에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3) J. P Lange 창세기 김 진홍역 1978 P328

를 들었고 만일 죽음에 대한 공포만 없어진다면, 충분히 선악과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여자가 선악과를 취할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자 이미 여자는 선악과를 충분히 취할 동기가 주어졌고, 따라서 이제까지 죽음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만했던 선악과를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라는 생각 속에서 바라보게 되자 그 선악과는 더욱더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였고 결국 그는 선악과를 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과연 아담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아담은 하와 곁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일 아담이 옆에 있었다면, 여자가 선악과를 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15)</sup>. 그러나 과연 그럴까? 유감스럽게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담은 여자가 선악과를 취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여자 곁에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선악과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만일 여자가 먼저 따먹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도 아담에게 먹으라고 주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담이 여자 곁에 있었으면서도 왜 아담은 이러한 여자의 범죄를 막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아담 자신이 선악과에 대해 그다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거나 혹은 아담과 여자간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결국 이러한 가운데 아담 역시 여자와 더불어 선악과를 취하고 말았던 것이다.

### 3 선악과를 취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취한 결과 인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하나님은 만일 인류가 선악과를 취하게 되면 정녕 죽으

리라 하셨는데 과연 인류는 죽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죽음은 어떤 형태로 다가왔는가? 많은 이들이 만일 인류가 선악과를 취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영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16)</sup>. 확실히 그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만일 이 영생의 개념이 창조된 당시의 육체가 불사의 육체였다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해다. 왜냐하면 최소한 동산에서의 육체는 불사의 육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인가? 그것은 곧 동산에 생명 나무가 존재했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인류의 번성을 위해 잠시 그 죽음이 유예 되었던 것일까? 그러나 창2:17에서 주님은 만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날(날)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어느 일정 기간의 시간이고, 둘째는 일반적인 하루의 날이요, 세째는 ~하는 순간으로써 동시 동작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볼 때 여기서는 세 번째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기서 특별히 선악과를 취할지라도 죽음을 유예시켜 놓고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아담이 선악과를 취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죽음을 유예시켰는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인류는 분명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즉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들과는 달리 선악과는 인류의 지적 삶을 위해 예비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하신 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 역시 육체적인 것보다는 지적인 그 어떤 죽음을 의미할 것 역시 당연한 것 아닌가?<sup>17)</sup> 그렇다면 대체 선악과를 취한 결과 아담과 여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그 변화를 바라보면

16) 박형룡 교의 신학 제 3권 p167

17) j. p lange p 291

15) j. p lange 창세기(상)p 298

서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1) 인류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

2) 하나님의 저주

3) 생명 나무에의 길이 막힘

### 1) 인류 자신에 나타난 변화

성경은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취한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고 말한다. (창3:17) 어떤 이들은 이 부분에서 아담과 여자가 자기들이 죄를 지은 줄 알고 뉘우침이 일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한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죄책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선악과를 취한 결과가 훨씬 더 심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진 사건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취한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음으로써 자신의 지적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 선악과 속에 어떤 주술적인 약품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악의 개념이 한갓 피조세계의 물질에서 나온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sup>19)</sup>.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성경의 메시지는 선악과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화학 약품이 있어서 그것을 먹게 되는 자는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18) 매튜헨리 p109

19) Ibid p 109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지식이라는 측면은 인류의 모든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창2: 19에서 아담은 이미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줄 정도의 막강한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지식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선악과를 취한 결과 아담이 치마를 해 입었다는 기록에서 그들이 어떤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가 되는 부분을 다름 아닌 그들의 생식기였다. 왜 사람의 생식기가 수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즉 인류의 불순물을 생식기를 통해 분출해 내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그것이 성(sex)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의견들에 동조하지만 전적으로 동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이상의 것은 나도 모르겠다. 다만 인류가 범죄 이전에도 그것이 여전히 수치였음을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의 수치를 문제삼지 않았다. 그것은 인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것이 수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다가 인류가 선악과를 취한 이후에야 인류는 비로소 그것이 수치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한 수치심은 결국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게 했고 인류는 스스로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모종의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었다<sup>20)</sup>.

그러나 사실상 인류의 범죄는 더 심각한 곳에 있었다. 왜냐하면 인류가 선악과를 취한 것은 단지 육신적 욕망 이전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개입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20) 매튜헨리는 여기서 아담이 숨은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벨리취는 아담이 신적인 명령을 어겼다는 가책보다는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더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만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매튜헨리의 주장이 옳겠지만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벨리취의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의 삶보다는 자기 의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독립선언이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써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중간자로써의 탈퇴 선언이었으며, 따라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류의 창조 목적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이것은 곧 반역이었다. 그러나 피조세계는 본질상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만이 보존되어진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만이 불안전한 피조세계가 안전하게 보존되어지는데 이것은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피조세계의 중간자인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전면 부인하고 말았으니 그 결과는 어찌되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인류는 물론 피조세계 자체가 불완전 속에 빠져들어 버리고 만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역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은 곧 인류는 이제 스스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류의 스스로에 대한 책임 의식은 일차적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데서부터 나타났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창조때 부여된 자적 능력을 사용하였는데 인류의 그러한 최초의 자적 능력이 바로 인류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자적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수치를 가려줄수는 없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찾게 되어질 때 그는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로써 자신의 범죄를 시인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담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인류가 얼마나 철저히 타락해 버렸는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했다는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류는 이제는 철저히 자기 위주로 되어 더이상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선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아담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왜 선악과를 취했느냐고 심문하실 때 그 평계를 여자에게 돌려 대고 있는 아담의 모습 속에서 어떤 긴박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즉 아담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잠겨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금기를 깨뜨렸다는 어떤 죄책에서 온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불안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는 여기에서 인류의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본질상 인류는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중간자로써 그리스 도적 직분으로 창조되었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위치였으며, 이 위치를 지킬 때에야 인류는 비로소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져버린 결과는 결국 인류와 하나님간의 관계가 두절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인류는 이 중간자의 위치에서 추락해 버리고 말았으며, 이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곧 자신의 위치를 이탈 한데서부터 발생한 불안정감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시내산 아래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출 32:1~6)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는 일대 불안이 엄습하였다. 얼핏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이는 이러한 불안은 실상은 있어야 될 모세가 사라짐으로 인해 나타난 불안정감속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감은 모든 인류에게 존재하는 것이며 인류는 끊임없이 이 불안정감을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방법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고, 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며, 이 세대는 과학으로 그 불안정감을 매꾸려 한다.

## 2) 하나님의 저주

지금까지 우리는 선악과를 취한 결과 인류 자신에게 나타난 비참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 범죄에 관련된 이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나에 대해 살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짜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창3:15)

하나님의 뱀에 대한 저주는 철저히 그의 목적을 분쇄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창3:1에서 성경은 창조를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짐승의 창조 목적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즉 창 2:18에서 하나님은 짐승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쓰러웠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짐승의 본래의 역할은 인류를 돋는 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창조목적과는 달리 그 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뱀이 오히려 사람을 넘어뜨려 버렸다. 이것은 인류가 그 위치를 이탈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엄청난 범죄였다. 비록 이일은 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뱀은 바로 그 짐승의 무리 중의 하나였으므로 그 저주는 짐승들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이다.<sup>21)</sup>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뱀에게 배로 기어다니도록 명하신 곳에서 뱀의 그러한 간교함과 지혜의 오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다. 즉 뱀이 인간을 넘어뜨린 것은 자신의 지혜로 인한 교만이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피조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을 오히려 피조세계의 가장 비천한 지위에 떨어뜨려 버림으로써 교만에 대한 철퇴를 가하신 것이라 볼수있다.<sup>22)</sup> 뿐만 아니라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은 여자와의 교제에 의해 이루어 졌음으로 오히

21) 엘리취 매튜헨리는 뱀에 대한 저주는 다른 짐승에 대한 저주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ange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네가 더 저주를 받았다는 이 기사는 전체 심판에 대한 상징적 배경을 가진다고 주장한다.i. p lange 창세기 p338

22) 엘리취 p107

려 이러한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뱀의 목적이 결코 달성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더구나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영원히 원수의 관계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주님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뱀의 계교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많은 의미를 도출해낼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해석은 이 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만을 취급하므로 더 많은 해석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창3:16).

하나님은 왜 인류에게 임태의 고통을 크게 하셨을까? 얼핏 이러한 주님의 태도는 합당치 않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의 어떤 행동에 기인한 경우이므로 만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리셨다면 거기에는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태초의 아담과 여자의 부부 관계에 있어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음을 생각해 보았다. 또 아담은 여자의 인도로 인해 선악과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태초에 이와 같이 아담의 가정에 주도권이 여자에게로 넘어가야만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만일 여기서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자에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여자는 아담에 대해 어떤 모종의 교만함을 가졌을 것이며, 이러한 교만함은 아담에게 있어야 할 가정의 주도권이 여자에게 넘어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나는 여기서 태초의 아담의 가정에 자녀를 낳았느냐 아니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야 할 근거도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럴 가능성성을 충분히 제시 해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하나님

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등이 실상 이미 여자가 자녀를 낳았다고 봄이 옮을 것이라는 추측을 넣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관계로 가정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남편을 가볍게 여기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며, 결국은 남편을 통해 전 이된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쉽게 여기고 결국은 범죄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여자의 임태의 고통을 크게 더함으로써, 자녀 생산을 인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뒤에나 오는 말씀 속에서도 보여진다. 즉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는 계명은 바로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sup>23)</sup>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패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창17~19)

만일 뱀이나 여자에 대한 저주가 그들의 행동이나 그 자신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아담에 대한 저주는 전 피조세계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아담이 피조세계의 주권자로 창조된 때문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위치와 그 위치에 따른 책임의 중대성을 보게 된다. 아담의 범죄는 단지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 더 나아가 피조세계 전역에 걸쳐 관련된 문제였던 것이다. 인류에게는 더이상 동산에서와 같은 삶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인류는 단지 먹고사는 삶을 위해 평생을 수

23) 헬리춰 p111

고하고 이마에 땀을 맷히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모태와도 같은 땅마저도 자신에게 대적하여, 엉겅퀴와 가시를 내어 그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더이상 피조세계가 인류의 다스림을 거절한다는 뜻이다. 인류는 이제 피조세계의 주권자가 아닌 피조세계의 일원으로써 피조세계와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피조물의 일원으로써 생존을 위해 피조세계와 투쟁하다가 중국에는 피조물의 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 3) 생명 나무에로의 길이 막힘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인류의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예정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었나에 대해 살펴보자. 태초의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과나무와 생명 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인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생명나무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대체 생명 나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창3:22-24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 바란다.

먼저 우리는 생명 나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해 창3:22는 “저가 그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주님은 범죄한 아담이 생명 나무 열매를 취하지 못하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하신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영생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영생이 영적인 어떤 존재(靈的實有)의 영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수있다. 왜냐하면 본시 에덴 동산이란 피조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그 동산 가운데 생명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나무가 피조세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생명나무는 바로 피조세계의 영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는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생명 나무에는 선악과나무에서처럼 어

면 주술적인 화학약품이 들어 있어서 취하는 이들로 하여금 불사의 몸을 갖게 해준 단말인가? 도저히 우리들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최소한 창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생명 나무는 바로 먹으면 영생을 주는 나무임에 틀림이 없다. 요계22장은 바로 이러한 생명 나무의 속성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 나무를 선악과나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또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즉 창3:22에서 주님은 “~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 나무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한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מןנו לדעתת סובורע ונתחה פנ' שלח ידו ולקח והי לעלם : הנה האדם היה כאחד גם מעץ החיים ואכל והי לעלם :**

만일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하라) 라고 해야 한다. 즉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영생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명령문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었으니<sup>24)</sup> 인류로 하여금 생명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가 생명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인류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 버렸기 때문임을 알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24) 크노벨은 선악과로 인한 지식의 획득은 도덕적 인식의 시작으로 인식하며, 괴셀은 뱀의 예언이 맞게 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반어적 의미로 해석했다. 메튜헨리, 랑게역시 같은 입장을 취했다. p lange p359

선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선악의 개념을 살펴보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선은 그림으로 표시되며, 악은 그림으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그림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그림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좋은, 아름다운, 선한, 귀한, 준수한,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 그림의 반대어인 그림은 죄악, 재앙, 화, 환란, 고난, 곤란, 근심, 불행한, 불길한 등 그림과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외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개념인 그림과 불의의 개념인 그림개념이다. 여기서 그림은 성경에서 악으로 표현되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의 반대어로 써어져 있는 것이다.(삼하4:11, 시37:32, 잡25:26, 18)

또한 이러한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αΗαδος*는 그림에 *δικαιοσυνη*는 그림에 그림은 *πνηροσ*에, *αδικημα*는 그림에 비교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먼저 그림의 개념을 보면 그것은 일련의 수용 할 수 성질의 것으로써 내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창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림이다. 반면 그림은 이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의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반적인 의의 개념은 올바름, 규준에 대한 일치 등으로 정의된다. 즉 이러한 의는 윤리적인 표준에 일치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은 사회 또는 집단의 규준에 따라 상대적이다. 하지만 성서적인 용법은 하나님의 義이지 사회의 규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옳바름, 혹은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 이시며, 세계 중에 그 의를 확립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더해진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에서 결과하는 사태 즉 그 목적의 성취이다.<sup>25)</sup>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서 **מְדִצָּה**와 **עַשֶּׁר** 그리고 **בוֹטָה**과 **עַמְּךָ**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בוֹטָה**과 **עַמְּךָ**는 하나님의 내적 성품에서 발현된 만족과 불만족의 표시라면, 이 내적 성품이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義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의는 언약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것은 곧 의라는 것이 **בוֹטָה**과는 달리 쌍방의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선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자. 존재와 존재가 존재할 때 이 존재간에는 인식이 발생하는데, 이 인식의 결과 관계가 발생한다. 이 관계는 곧 객체에 대해 親과反의 형질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므로 따라서 친과반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이 만물에 대해 친의 인식을 나타냈고 이것을 **בוֹטָה**으로 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모든 존재는 선한 것이다.<sup>25)</sup> 그러나 이 존재가 변질되어 버릴 때 하나님은 더이상 이 존재에 대해 친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를 악 **עַמְּךָ**으로 보신다. 하나님의 인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בוֹטָה**으로 보셨다. 그러나 인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를 **עַמְּךָ**로 보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에 의지하여, 태초의 에덴 동산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러나 우리가 먼저 동산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데, 그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둘째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며, 또한 인식 능

력이 주어졌다. (창2:9) 아담에게 인식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곧 그가 자신에게 무엇이 좋고( **בוֹטָה** ), 무엇이 나쁜 것인지( **עַמְּךָ** )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자유의지는 그가 이렇게 판단되어진 일들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은 범죄 후의 그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동산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선악을 판단할지라도 그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으므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써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묻는다. 만일 본질상 피조물이 그 영적 의미에서 변질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형상 또한 변질이 가능할 것 아닌가? 그렇다. 이러한 변질은 사단에게서 먼저 나타났는바 이 것은 인식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담 역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될 것이 시사되었는데, 이 변질을 억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주어진 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한 언약이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아담이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에서 변질된다 할지라도, 그가 이 언약만 지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본질상 언약은 하나님의 의의 제시이므로 언약을 지키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써 제 위치를 지키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담의 변질은 과연 언제부터 일어났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는 선한 존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토록 전적으로 선한 존재가 과연 뱀의 한마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사실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실지로 사람이 한가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양심을 설득시키는 일이다. 또 자신의 양심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이 그 양심을 먼저 공격하여 약화 시킨 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

25) 성서 대사전, 이성호 편, 해문사, 1989, p1453

26) 어거스틴, 참회록, 최정선역, 지성문화사, 1988, p146

상으로 창조된 인류가 단지 뱀의 한마디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 버릴 정도로 유약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나의 견해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미 동산 내부에서 아담과 여자는 변질되어져 버렸다고 주장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미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해 반의 요소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의 요소를 나타내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써의 어떤 교만, 혹은 선악과를 취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 인류에게 인식의 결과로써 나타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의 요소를 제거하길 원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와 하나님 이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류에게 인식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반의 요소를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으로써 깨뜨리시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육의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의 일면을 읽을 수 있는데 즉 완전한 의인이었던 육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교만, 즉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의식이 그의 심중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육에대한 환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육의 이러한 감추어진 교만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이 드러날 때 친히 강림하심으로써 육의 교만을 꺾으심으로 육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그것이다. 둘째는 본질상 언약은 하나님의 의의 제시이므로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짓밟았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죄(תְּשׁוֹבָה)의 개념이 형성된다.<sup>27)</sup>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생명 나무 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다. 따라서 여기서 일단은 언약적 측면은 제쳐 두고 선악을 아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고 따라서 하나님과는 달리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선악의 판단 기준이 바로 사람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개념에 의지하여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같이 되었으니라는 말씀을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사용된 선악은 선악과에서와 마찬가지로 עַרְבּוֹת 가 사용되었다. 먼저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선악을 아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악을 아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하여 親할 때에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이라고 할때는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 反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피조물에 대해 친과반을 나타내는가? 이것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만족을 주고 주지 못하는 차이 때문이다. 이것은 곧 인류가 선악을 아는 데 있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소리가 결국은 인식의 대상에 대해 친과반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가?

27)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이 바로 이러한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사회 계약이 그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이며 이것은 곧 직접적이던 아니면 간접적이든 상대방의 의를 내가 파괴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며, 삼위 하나님은 각기 독자적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간에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親하시며, 하나님과 피조세계간의 관계가 발생할 때는 親과 反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발적으로) 선악을 아신다. 그러나 인류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 본질상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란 존재할 수가 없었으며, 여기서 인류의 독자적인 위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인류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親만이 존재하며, 反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즉 인류는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에 대하여 反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독자적인 위치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에 대하여 친과반을 동시에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sup>28)</sup>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써의 본래의 위치에서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어질 때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 곧 생령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생명 나무가 범죄한 인류에게 주어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 나무 열매에 대한 접근을 막으심으로써 인류가 이러한 잘못된 위치에서 벗어나 옳바른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로 하신 것이다.

28)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선과 악을 안다는 측면을 인식의 문제로 보는게 아니라 경험적 문제로 파악한다. 즉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 反하게 됨으로써(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선악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애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처된다. 왜냐하면 인류가 범죄한 후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수치심을 느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선악을 알았다는 측면을 선악을 알았다는 것 자체보다는 선과 악을 알수 있는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의 논거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인류에게 생명나무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생명나무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인류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심대한 이유가 있다. 즉 하나님이 생명 나무를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목적이 있다. 생명 나무가 만들어진 것 역시 이러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었다. 즉 고전15:28에서처럼 하나님은 친히 만유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 중간자로써 인류를 두신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므로, 마땅히 그 중간자 역시 영생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류의 범죄 결과 인류는 더 이상 이 중간자의 입장이 아닌 독자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러한 독자적인 위치에서의 인류는 이미 그 창조 목적이 빛나가 버렸으므로 더 이상 인류에게는 영생의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질상 만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야 하므로 인류는 흙으로 돌아감으로써라도 하나님에 대한 통치권이 회복되어져야 했던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류가 어디까지 그릇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창11:4은 그러한 인류의 범죄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자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대 꼭대기를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흘러짐을 면하자’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를 위하는 명목으로 자행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점철되어졌음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바벨탑의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여기서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본질상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 그곳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바로 이사야14:13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그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고 외치던 바로 그 사단의 소리였던 것이니 이는 곧 인류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해 버렸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악과를 취한 동기였던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열망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가 이와 같이 망령된 행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럴 수는 없었다. 만일 인류가 영생까지 얻게 되어진다면 그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죽음의 허무함이 없어진 인류는 겉잡을 수 없이 패역의 길을 달릴 것이며, 그 결과 인류는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 너무도 뻔한 일 이었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인류에게 예정되었던 영생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자신들의 피조세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의 범죄와 또 그 결과로 인해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애초에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예대해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범죄의 결과는 즉각적인 것이어야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죽음이 곧 인류가 스스로 얼마나 수치스런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두려운 수치였다. 결국 이러한 수치감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피조물 자체로써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고, 인류의 타락으로인 해 인류는 또한 본질적인 인류의 위치 곧 하나님과 피조세계간의 중간자로써의 위치가 이탈되는 데서 발생한 영적 불안정감으로 인해 영적 평안을 상실하였고, 육적인 죽

음까지도 불가피해지고 만 것이다. 결국 인류는 이 수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바 인류의 역사는 이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과 원래의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중간자의 위치에서 이탈된 불안정감으로 인해 야기된 패역과 오류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 4. 범죄 후의 인류

이제 우리는 이러한 범죄 후의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창3:20에서 인류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수 있는데 그것은 왜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개명시켰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창2:23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를 여자라고 했다.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범죄 후에는 하와 곧 산 자의 어미라는 의미가 부여된 이 이름을 주었던 말인가? 하와라는 이름이 산 자의 어미라는 뜻을 가질 때 이것은 분명 여자라는 말보다는 한층 격상된 의미를 주고 있다. 만일 아담이 자신이 선악과를 취한 사건에 대해 분노해 하고 원통해 하고 있었다면 과연 아담은 하와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었겠는가? 물론 어떤 사람은 아담이 하와에게서 임태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29)</sup>.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은 범죄 직후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나 통분보다는 드러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왜 아담은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했던가? 범죄 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 자신에 대해 살필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여타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를 바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 역시 다른 짐승들과 같

29) j. p lange p357.매튜헨리p137

은 수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피조세계의 주권자이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피조세계의 주권자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아담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진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와 같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보다도 자신의 왕으로써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삼상15:24) 그렇다면 아담의 이와 같은 태도 속에서 과연 아담이 구원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지극히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하와라 이름한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는 여기서 아담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고 싶다. 즉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아담은 이러한 상황을 애통해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악과를 취함으로인 해 선악의 지식을 얻게 된 데 대해 더 만족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비록 죄가 여자를 통해 인류에게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되어 버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아담이 동산을 나갈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비록 인류가 범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수치를 가려 주심으로써 아담으로 하여금 여전히 피조물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인류의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가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동산에서와 같은 사랑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피를 흘려야만 하는 억압에 의한 통치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여 나간 아담의 가족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보자. 과연 아담의 가정은 행복했을까? 창4:1에서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들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갈망에 빠졌고 그 결과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 가운데 빠졌는데 어떻게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들릴 수 있단 말인가? 또 이 부분을 보면 하와는 男兒에 대해 소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이 하와로 하여금 男兒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은 범죄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엄명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와는 아담에 대한 순종과 복종 가운데서 살아야 했다. 이것은 또한 여인의 삶이 근본적으로 남자에 대한 의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하와는 아담에게서 그러한 의지를 할 수 있었을까? 비록 아담이 어떤면에서 만족해하며, 동산을 나갔을찌라도 그가 곧 닥친 상황은 비참과 곤란과 어려움 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아담이 과연 하와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냈을까? 이는 그는 그 모든 원인을 하와에게 돌렸을 것이다. 여기서 하와는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게 되어지고 아담 대신에 자신이 의지할 만한 남자를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녀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자신에게 다시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아담 대신에 가인을 자신의 의지자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아비를 따라 농사를 짓게 되었고, 둘째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회미하지만 가인이 죄악된 태도를 그 아비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본질상 직업이 같은 아담과 가인은 같이 일을 했을 것이요, 여기서 아담의 성품은 가인에게 교육을 통하여 전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벨의 경우는 보다 더 어머니인 하와와의 접촉이 많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 어미의 성품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성품은 결국 추수기에 나타난 그들의 제사를 통해 그 결실을 나타내게 되어졌는데,

가인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신의 수고의 산물인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 반면, 아벨은 범죄의 결과로 수치된 몸을 가려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sup>30)</sup>. 결국 이 결과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다시 셋을 주심으로써 에노스 시대에는 굳건한 교회를 세우셨다. 이로써 모든 범죄의 원흉이었던 뱀에 대한 저주가 이루어졌으니 곧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간의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과와 생명 나무 그리고 이것과 얹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인류는 곧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중간 자로써 창조되었으며, 인류가 이 위치를 옳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

30) 아담이 농사를 짓게 된 것은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다. 따라서 가인이 농산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결국 인류의 저주의 결과 물을 가져온 셈이 된다. 그러나 아벨이 가져온 양의 제물은 하늘이 아담과 하위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에 가죽옷을 지어준 것에서 연유한다. 아마 하나님은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다. 따라서 아벨이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인류의 수치된 육신을 가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내포된 듯 싶다.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저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아벨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될수 있다. 더많은 의미를 위해서는 텔리춰 창세기주석 p117을 참고 하라.

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어야만 했다. 그러나 존재와 존재 사이에 나타난 인식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께 대하여,反而 나타내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이는 나중에 하나님과의 언약까지 깨뜨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인류의 삶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인류의 모든 범죄와 타락은 그리스도도 안에서 회복되는 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제시 되어졌다. 즉 그리스도는 인류의 범죄로 인해 끊어버린 하나님과 인류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바, 그 기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써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 나무로써의 그리스도가 그것이다.

### 1) 살려주는 영으로써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16:45)라고 성경은 선포한다. 그렇다면 살려주는 영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앞에서 산영이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인격적인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義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義는 언약에서 나타나므로, 언약을 준수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선악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톱과라이로써 표현되는 이러한 선악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親과反에서 나타난다. 또 우리는 앞에서 산영이라 한 아담과 여자가 동산에서 이미 反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산영 일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였기 때문이 다라는 것도 살펴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에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복음서에

서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산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언약 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렇게 말을 할 만한 어여 언약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은 무엇으로 살았다가할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 성에 대한 믿음이며, 이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이미 참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 반을 갖고 있었던것같이 반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그러한 반을 나타내었고, 이삭역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했으며, 야곱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反을 악(라이)으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 앞으로 나오시는 주님을 향해 말했다. 이때 주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당신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주님은 무슨 뜻으로 이같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

첫째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이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바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제시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곧 하나님은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 하셨고 아담은 이에 순종했다. 이러한 언약의 순종은 언약을 제시 한자를 의로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아

담은 언약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살것인데,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한 첫번째 일로써 먼저 순종의 표시를 이 세례로써 나타내셨던 것이다. 즉본질상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므로 이것은 주님이 회개를 한다는 의미인 것인데, 아무죄가 없으신 주님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주님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인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인류의 의였다. 왜냐하면 주님이 참 사람이셨기 때문이다. 만일 주님이 영으로써 오셨다면 이것은 인류의 의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참 사람이셨기에 주님의 순종은 사람의 의로써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순종이 어떻게 사람의 의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치시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온전히 이루게되었을때 이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이 순종이 옳바로 이루어질 때에야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의의 규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주님의 삶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삶 바로 그것이었다. 즉 3년간의 공생애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의 삶은 하나님에대한 철저한 순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순종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행위였고, 이것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순종이 완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의의를 인정함으로써 자신 역시 스스로 의인이 되기에 이른것이다. 그러나 본질상 주님은 인류의 대표로써 서셨으므로 주님의 의는 곧 인류의 의로 대변되어 질 수 있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논

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이 십자가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데, 언약으로써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새언약의 정표인데 즉 태초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언약으로써 주어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를 믿으라는 것이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십자는 선악과 이후로 완벽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義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운데 들어오게 되는바,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산영으로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타락후 인류의 소망은 사65:17~25에서 잘 나타나 있는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에덴동산이며, 에덴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생령의 삶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 백성들의 바램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바 마27:52~53은 바로 그러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다.

## 2)생명 나무로써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언약으로써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옛적 동산 가운데 있었던 생명 나무에 대해 살펴보자. 동산에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 나무가 있었는데,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이곳에 이르는 길이 막혀 버렸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산영이 되었다면 이 생명 나무 역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어디에 이 생명 나무가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요6:54)고 말씀하신다. 일반적으로 성찬 예식으로 대변되어지는 주님의 살과 피에는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논쟁은 피하고 원리적인 면에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주님의 살과 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고 마셨던 만나와 므리바 샘물로써 연상을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성찬 예물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주님의 살과 피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므리바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나 므리바물은 비인격적인데 반해 주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피는 바로 주님의 모든 육체의 속성인바 이것은 곧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는 단지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이나 주님이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다.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두인격체가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을 시사하는바 하나는 주님의 인격이고, 하나는 바로 나자신의 인격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도리는 주님을 모시려는 것이지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나의 주권자는 내가 아닌 주님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구해왔던 믿음의 도인데 바로 영적 합일이라는 말로서 이것을 표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이것이 생명 나무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우리는 범죄 직후 아담이 자신의 육체에 대한 수치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수치로 드러난 인간의 육체는 더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최소한 인류는 이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전혀 새로운 육체가 필요했다. 즉 땅의 수치의 흔적이 없는 완전한 육체, 그리고 우리는 그 육체는 바로 주님의 부활 후의 육체라는 것을 금새 생각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육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그 육체를 우리 것으로 할 순 말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

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데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즉 비록 나는 나이지만 내인의 통치권은 주님께 있으므로 나는 더이상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인 것이며, 주님은 이미 의인으로써 인정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내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생이 내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우리 주님이 참 생명 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와같이 주님 안에서 생명 나무의 영생을 획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영생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했던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중간자로써의 인류의 위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이견들과 주장들이 있을지라도 인류가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중간자로써 창조되었고 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나 태초의 언약의 실패는 막대한 결과를 인류 삶에 몰고 왔다. 실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그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서든 인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왔었고 앞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비록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서 사라졌지만 그 현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 아담의 죄성, 선악과에 대한 유혹, 뱀의 속삭임, 얼핏 먼 옛날 우리 선조에게만 있었을 것 같은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마다 우리는 태초의 동산의 이야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태초의 언약을 생각하고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소원해졌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우리가 서야 만

할 위치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다. 또 바로 그때 우리는 신양인으로써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갈 수 있는 것이다.

### ◎ 참고 문헌

- 성경전서, 김호용,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4
- BIBLICA HEBRAICA, DBS
- The Greek new Testament. UBS 3판
- 구약성서 히브리어 사전 고영민 편저, 기독교문사, 1988
- 성서 헬라어 사전 박창환역 기독교서회, 1988
- 매튜헨리, 창세기주석(상), 박근용역, 기독교 문서, 1980
- J.P. Lange, 창세기주석, 김진홍역, 백합출판사, 1978
- 카일, 델리취, 창세기1 고영민역, 기독교문화사, 1983
- 박형룡, 교의신학, 제3권, 기독교문사, 1983
- 어거스틴, 참회록, 최정선역, 지성문화사, 1988
- 성서 대사전, 이성호편, 혜문사, 1989